

효성重, 고부가 전력기기 공급 확대 3분기 매출·영업익 대폭 증가 전망

초고압변압기 중심 수익성 개선
전년대비 영업익 41% 증가 추정
건설부문 일회성 비용 부담 변수

효성중공업이 미국향 고부가 전력기기 공급을 늘리며 실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동의 운송 차질과 건설 부문의 비용 부담이 단기 변수로 남아 있지만 빅테크 수주와 국내외 생산시설 확충이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미국 초고압변압기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물량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댈러스 공장 증설 설비의 연간 가동 효과와 고단가 초고압변압기 출하 증가가 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수주처도 기존 전력회사에서 빅테크로 넓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달 미국 빅테크 2곳과 총 3865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남·북부에 새로 건립되는 인공 지능(AI) 데이터센터에 220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kV) 변압기와 1665억원 규모의 345kV 변압기를 공급한다.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할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 지난달 초 변압기·차단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 등의 설계 인력을 모아 데이터센터사업팀을 신설했다. 개별 기기 공급에서 나아가 전력 공급과 전압 안정화에 필요한 설비를 함께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수주 증가에 맞춰 국내 생산시설도 확충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약 1만8996㎡ 규모의 수출 전용 초고압차단기 신공장을 준공했다. 420kV·550kV·800kV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가동에 따라 창원공장의 420kV 이상 초고압 차단기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기존 공장은 내수용, 신공장은 수출용 제품을 전담하도록 생산체계를 재편했다. 신공장에서는 부품 생산부터 조립·시험·출하까지 전 공정을 수행한다. 핵심 부품인 절연물 생산능력도 약 2배로 늘려 완제품 증산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해외 물량의 납기 대응력을 높였다.

미국에서는 변압기와 차단기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억 달러를 투자한 댈러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의 추가 증설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 칸타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초고압차단기 현지 생산기반도 확보했다. 국내 수출 물량과 미

국 현지 생산을 함께 늘려 주요 고객의 발주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신규 수주는 올해 8월까지 약 9조3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어섰다. 연간 수주목표도 기존 8조4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높였다.

수주 확대와 고부가 제품 공급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연결 매출 전망치는 1조 9032억원, 영업이익은 3103억원으로 각각 17.18%, 41.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동의 운송 차질과 일부 고객사의 납기 조정으로 매출 반영이 지연되고 건설 부문의 추가 원가 부담도 예상돼 이익 증가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의 운송 차질과 일부 납기 변경, 건설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단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따른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향 고부가 변압기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 내년에는 댈러스 증설 설비의 연간 가동 효과도 더해져 중공업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 돕는다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식
금리 우대등 2조 규모 금융 지원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검증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정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소부장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기술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식과 1호 보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과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 4

대 시중은행 및 소부장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와 시중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 기업들은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과 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첫 지원 대상 협력사에 보증서를 전달하는 행

사도 진행됐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약 4300억원을 출연하고 클린룸과 전문 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K-반도체’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수출공급망 기금 지원과 트리니티 랩을 통한 윈스톱 기술 검증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힘을 모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로템, 3분기 실적 뒷걸음… 해외 수주·방산사업 인수 ‘승부수’

매출 전년 수준, 영업익 11% 감소

3분기 영업이익이 주춤한 현대로템이 신규 해외 수주와 현대위아 방산 사업 인수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19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6207억원으로 0.1% 증가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0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4조6842억원으로 11.2% 늘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

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760억원으로 실제 실적은 이를 10.5% 밑돌았다.

수익성에는 환율 하락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8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5.6% 하락했다. 다만 방산 수출 물량 생산이 이어지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중장기 실적 성장의 관건은 신규 해외 수주다. 페루와 이라크, 루마니아 등이 K2 전차의 잠재 수출 시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연말 예정된 한국과 페루 간 정상회담은 신규 수주를 가능할 변수로 꼽힌다.

현대로템은 방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를 인수한다. 인수 금액은 3584억원으로 자산과 부채, 인력,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영업양수도 방식이다.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차 등에 사용되는 포신을 제조하고 있다. 전체 영업가치는 4800억원으로 평가됐으며, 공장 부지 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로템은 이번 인수로 기존 전차·장갑차·다목적무인차량 사업과 포신 생산 역량을 결합해 방산 생산체계를 수직계열화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전광판에 ‘삶이 묻는 질문, LG가 답하다(Life Asks, LG Answers)’ 영상을 공개했다. /LG전자

LG전자, AI 홈·로봇 등 미래비전 공유

美 타임스퀘어에 브랜드 영상 공개

LG전자가 글로벌 고객들에게 생활가전의 혁신 역사와 인공지능(AI)홈·홈로봇으로 확장하는 미래 비전을 알린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전광판에 브랜드 헤리티지 영상 ‘삶이 묻는 질문, LG가 답하다(Life Asks, LG Answers)’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여 고객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록 하는 ‘제로레이버 홈(Zero Labor Home)’ 비전을 글로벌 고객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됐다.

LG전자가 1958년 창립 이후 이어 온 가전 혁신의 역사와 AI홈, 홈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미래 전략을 담았다.

LG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어 영국 런던 파카딜리 광장 전광판과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기아,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 대상

현대차·기아 연구원들이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실물로 선보였다. 트렁크 공간을 넓히는 바닥판부터 시각 장애인 보호를 돕는 안경까지 고객의 이동 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기아는 19일 경기 남양기술연구소에서 ‘2026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열고 본선 진출 6개 팀의 시제품과 시연을 선보였다. 대상은 M.S.V.2팀의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가 차지했다.

올해 17회를 맞은 행사는 ‘혁신의 기원’을 주제로 열렸다. 총 130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6개 팀이 본선에 올라 독창성과 기술 적합성, 고객 지향성 등을 평가받았다.

대상을 받은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는 한 손으로 트렁크 바닥판을 앞으로 밀어 3단으로 접고 뒷좌석 뒤에 고정하자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 시연장면. /현대자동차그룹

위아래로 나뉘었던 적재 공간이 합쳐졌다. 트렁크 하부 공간을 쓰려면 바닥판을 꺼내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 것이다.

질의응답에서는 기존 차량에 용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지, 사람이 앉아도 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개발팀은 투싼·스포티지급 차량에 적용하기 적합하다면서도 양산을 위해서는 신뢰성 검증과 재질 최적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혁 기자 sh95@

현대글로비스, 필라델피아 항만개발 참여

항만 터미널 운영… 물류 경쟁력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필라델피아 항만 개발에 참여해 북미 동부 물류 거점 강화에 나선다. 기존 완성차 보관·운송 사업에 항만 터미널 운영을 더해 해상운송부터 내륙운송까지 아우르는 통합 물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항만청 및 현지 개발사와 항만 확장 개발과 완성차 터미널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자동차운반선 전용 선석 확보와 신규 완성차 물류 부지 개발, 기존 부지 계약을 20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신규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현대글로비스의 항만 내 운영 면적

은 약 34만평으로 확대되고, 차량 보관 능력은 기존 3만3600대에서 3만76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10년부터 필라델피아 항만에서 완성차 물류사업을 운영해 왔다. 2019년에는 약 19만평 규모의 완성차 전용 야드인 사우스포트를 개조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넓혔다. 2024년 볼티모어 항만 운영 중단 당시에는 필라델피아를 대체 거점으로 활용해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도 했다.

향후 현대글로비스는 터미널 운영을 통해 해상운송·터미널운영·보관·내륙운송을 연결하는 일괄 물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용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 화물,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물류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대서양 항로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m@